

# 의약대 수시 미등록율 ↑...정시 이월 인원 세자릿수 전망

### 의대 증원에 수시 중복합격 늘어 정시 합격선 예상보다 낮아질 듯 대입 정시 오늘부터 4일간 접수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 증원의 여파로 전국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이날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아직 공식 발표는 전무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시 미

충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최근 6년간 수시에서 정시로 의대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분산되자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N차 추가 모집을 통해 수시 인원을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월 규모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정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시 수시 미충원이 늘면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의대 풀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시 '카드' 6장을 대부분 의대에 집중하는 경우가 늘어 의대 간 중복합격이 많아진 것도 수시 미충원 비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7일까지 공식 발표된 지방권 4개 의대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99.6%로, 작년의 59.7%를 크게 웃돌았다.

충북대는 200.0%에 달했고, 제주대 123.4%, 부산대 83.7%, 연세대 미래캠퍼스 36.1%였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의 등록포기율도 작년보다 올라갔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작년 54.3%에서 79.0%로, 이중 서울권 7개는 49.7%에서 68.7%로 상승했다.

치대는 서울대 32.0%(작년 36.0%), 연세대 94.1%(32.4%), 한의대는 부산대 100.0%(45.0%)로 각각 집계됐다.

입 대표는 "의약학계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도 의대간 혹은 의약학계열간 전 부분에서 미등록 규모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 합격선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온 직후인 이달 6일 메가스터디는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의대 합격선을 398~412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종로학원은 의대 합격 최저선을 서울권 408점, 지방권 402점으로 예측했다.

아직 모든 대학이 공식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정

시 최종 모집인원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이로써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정시 레이스가 곧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대입은 어떤 식으로도 조정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강행되면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현 고등학교 2학년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런 주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연합뉴스

## 동신대 군사학과 재학생 장교 선발시험 100% 합격 '화제'

### 2014년 출범 후 졸업생 전원 임관 1인 평균 3.3개 중복합격 역대 최고

동신대 군사학과가 올해 신입생 전원이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서 재학생 100% 장교 선발시험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동신대 군사학과에 따르면 2~4학년 재학생이 지난해까지 전원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 입학한 1학년들이 장교 선발시험에 전원 합격하면서 전국 최고 명문 군사학과로서 위상을 떨쳤다. 이들은 4년간의 대학 등록금과 추가 가산금(군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수준의 소위로 임관한다.

2014년에 출범한 동신대 군사학과는 2018년 28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한 이래 올해 2월까지 총 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 전원이 재학 중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에 100% 합격,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 전원이 장교 시험에 합격하며 100% 합격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입학한 1학년(117)은 육군 학군(ROTC)장교에 전원 합격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여러 장교과정에 1인 평균 3.3개로 중복 합격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 비결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



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성 함양 및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주기적으로 성격검사,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 인성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개인별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지도교수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학생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내용과 학업성취도 등의 결과를 교원종합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수, 신입생과 재학생,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유익한 팁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점도 장교 시험 합격률 100%의 비결이다.

재학시절 멀티형 장교로 성장한 졸업생들은 임관 이후 각종 훈련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육군 학사 장교 수석 임관(대통령 표창), 해병대 장교 수석 임관(국방부 장관상), 육군 기계화학교 수석 수료(기계화학교장 표창), 육군 공병학교 수석 수료(공병 학교장상) 등의 성과를 거두며 동신대 군사학과 졸업생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장교들의 선행도 주목받고 있다. 졸업생들이 소위 임관 후 받은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해 쾌척하는 릴레이 장학금 기부도 동신대 군사학과만의 자랑스런 전통이다.

류태웅 동신대 군사학과장은 "엘리트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수 교수진 확보, 최적의 시설지원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캡스톤디자인 대회...오늘부터 정시모집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임상병리사 등 보건 과학 미래를 선도할 '바이오헬스' 인재들의 실무·연구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강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교내 이공관에서 '캡스톤디자인(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Fucoidan(후코이단)을 이용한 혈전분

해능 분석에 대해 발표한 손보라·김원준·장필상 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임상병리학과 전공심화 과정 4학년 18명이 참여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전공실무 교과과정을 종합한 논문 및 논문작성 과정을 발표했다.

한편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25년 1월24일까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2025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임상병리학과는 2020학년도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또 임상병리학과는 31일부터 25년 1월14일까지 정시모집을 진행한 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재학생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조력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업, 청년디지털닥터단 성과교류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학교 행정관 3층 스마트강의실에서 '2024 청년디지털닥터단 성과교류회'를 열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

광주대 LINC3.0사업단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협업으로 운영한 청년디지털닥터단은 지난 10월 18일 발대식을 갖고, 광주대 재학생들로 이뤄진 10개 팀과 소상공인 10개 업체를 매칭해 10주 동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매개가 필요했는데 광주대가 손잡아 주셔서 감사하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이런 시도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진정한 RISE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경

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의기투합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헌 활동을 펼치게 돼 매우 뜻깊다. 광주대가 앞으로도 원조 청년디지털닥터단의 자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행사에서는 뷰티업체 듀모르(Dumor)와 매칭돼 ▲업체 SNS 개설 및 운영 ▲입점 ▲홍보 게시물 등을 도운 '컴공아이들(김준환 외 2명)' 팀을 비롯해 4개 우수 팀(소보루, 패스파인더, 미디어센터)을 시상하고, 9개 팀에 활동 증명서를 수여했다.

청년디지털닥터단 참여 학생들은 "미처 몰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보람찬 경험이 됐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